

Ⓑ

1.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제상태에서 자본량과 국민소득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 ②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균제상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높다.
 - ③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일정하다.
 - ④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균제상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진다.

2.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다.
 ㄴ. 구조적 실업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
 ㄷ.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윤감소 혹은 매출감소 등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한다.
 ㄹ.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률의 합으로 정의된다.
 ㅁ. 자연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 ②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 ④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4. 어떤 독점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상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이 1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자. 이 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 ② 한계비용이 0이 되는 점이다.
 - ③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다.
 - ④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점이다.

5.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120-p$ 이고 공급곡선은 $Q_S=2p$ 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당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였다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 ① 300원
 - ② 400원
 - ③ 500원
 - ④ 600원

6.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 $U=X^{0.5}$ (X 는 자산금액)이다. 이 소비자는 현재 6,400만원에 거래되는 귀금속 한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귀금속을 도난당할 확률은 0.5인데,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가격으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비자의 기대효용과 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낼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각각 얼마인가?

	기대효용	최대보험료
①	40	2,800만원
②	40	4,800만원
③	60	2,800만원
④	60	4,800만원

7.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노동인구의 변동
 - ② 자본량의 변동
 - ③ 기술지식의 변동
 - ④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

8. 총비용함수가 $TC=100+20 \times Q$ 이다. 이때, TC 는 총비용이고 Q 는 생산량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생산량이 1일 때, 총고정비용은 120이다.
 ㄴ. 생산량이 2일 때, 총가변비용은 40이다.
 ㄷ. 생산량이 3일 때, 평균가변비용은 20이다.
 ㄹ. 생산량이 4일 때, 한계비용은 20이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9.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화 X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Y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② 재화 X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Y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 ③ 재화 X가 정상재라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 ④ 재화 X가 열등재라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10.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② 원화가치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정책의 집행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 ④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